

2019년도

佛敎學硏究會

여름 워크숍 자료집

승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 주최 : 불교학연구회
- 일시 : 2019년 6월 21일(금) ~ 22일(토)
- 장소 : 법보종찰 해인사 템플스테이

ksbs.jams.or.kr

■ 워크숍 일정표 ■

6월 21일(금)	
13:30 ~ 14:00	# 입재식 사회 : 조기룡 (동국대학교) • 개회사_임승택 교수 (불교학연구회 회장) • 환영사_향적스님 (해인사 주지 스님) • 격려사_경성스님 (해인사 울주/불교학연구회 부회장)
14:00 ~ 17:10	# 제1부 학술대회 [장소 : 템플스테이 강당] 사회 : 조기룡 (동국대학교)
[14:00~14:40]	• 제1발표 : 보일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해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현재와 향후 과제」
[14:50~15:30]	• 제2발표 : 혜진스님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학감)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승가교육 사례」
[15:40~16:20]	• 제3발표 : 은광스님 (운문사승가대학)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16:30~17:10]	• 제4발표 : 혜범스님 (청암사승가대학)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현황 및 발전방향」
17:10 ~ 17:40	저녁공양 [장소 : 템플스테이 식당]
18:00 ~ 20:00	# 제2부 종합토론 [장소 : 템플스테이 강당] 좌장 : 무애스님 (해인사승가대학장) 승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20:00 ~	방 배정 및 취침
6월 22일(토)	
~ 07:00	기상 및 아침공양 [장소 : 템플스테이 식당]
07:00 ~ 08:00	해인사 장경관전 견학
08:00 ~ 09:00	자유시간
09:00 ~ 09:30	회향식
10:00 ~	해산, 서울 이동

■ 목 차 ■

[제1발표] 보일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14:00~14:40
해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현재와 향후 과제	5
[제2발표] 혜진스님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학감)	14:50~15:30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승가교육 사례	23
[제3발표] 은광스님 (운문사승가대학)	15:40~16:20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31
[제4발표] 혜범스님 (청암사승가대학)	16:30~17:10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현황 및 발전방향	37

[제1발표]

해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현재와 향후 과제

보일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I . 시작하며

전통 속의 혁신은 가능한가. 이 글은 해인사승가대학¹⁾이 지난 4년 동안 (2016~2019학년도) 진행해온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회고이자 향후 미래 승가 교육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논의이다.

승가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지되고 승가가 번영하는 근원이다. 그중에서도 한국불교의 법보종찰 해인사승가대학은 승가 교육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신심(信心), 원력(願力), 수행(修行)을 기조로 삼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종단의 인재들을 양성해 오고 있다. 1700여 년 역사의 한국불교에서 해인사승가대학은 그 자체가 한국불교 승가 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해인사승가대학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사, 율사, 강사를 배출²⁾하였다. 이

1) 해인사승가대학은 십여 년 전 현 교육원장 현웅스님이 주지 소임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부터 전국 사찰 승가대학 중 가장 먼저 교육개혁이 시작된 곳이다. 당시 학장 법진스님은 새로운 교과 과정을 과감히 도입해 혁신적인 교육 불사를 시작했다.

2) 해인사승가대학은 1955년 개원한 해인사 법보전문강원을 전신으로 한다. 그 후 1957년 지관·월운·홍법스님 등 1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해인강원(1962), 해인승가학원(1972), 해인사승가대학(1987)으로 명칭을 변경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불교의 지적 전통과 수행전통을 전승해 갈 수 있는 승가 교육에 대부분 사찰역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불교는 다시금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처해있다. 해인사승가대학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범보종찰 해인사의 역사와 철학을 승가 교육에 녹여내기 위한 고민과 실천의 일환이다.

현재의 승가 교육은 정규 교과목의 내용 면에서는 다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교수법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소위 서당식 한문 불전 수업, 일방적인 강의 중심학습, 정규교과목 간의 상호 연계 노력 부족 등등이다. 그러나 교수법에 대한 논의 이전에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출가자 수 격감이다. 현재의 출가자 수 격감 문제는 진행 중이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출가자는 장래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전통을 전승해가는 불교의 자산이자 그 자체가 불교의 핵심 역량이다. 이러한 상태로 승가 교육을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 노력이 없다면 승가 교육 시스템은 유명 무실해질 위험성이 있다. 초심 출가자들의 입장에서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도 않는 수업에서 수행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출가자 수 격감,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승가 교육의 현장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대로 조정할 기회이다. 이제 출가학인들의 인원수에 주목하기보다는 출가자 개개인의 자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수용인원이 백여 명이 넘는 과밀화된 대방 생활을 강제했던 방식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소수정예로 구성된 학인 스님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투자와 혜택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인사승가대학에서 시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우선 그간 무애(無碍)학장스님 재임 기간에 시도된 해인사승가대학의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일련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와 그 교육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Ⅱ.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

1. 취지와 동기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를 프로그램화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 토론은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인 중도(中道)를 일상에서 드러내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이다. 둘째, 불교 토론을 통해 못 삶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바른 견해 즉 정견(正見)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해 토론함으로써 현대 우리말의 정서 속에서 붓다의 사상을 이해하고 체화해 나감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현대 언어 감각에 맞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부연하자면, 첫째 중도의 일상적 실현과 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가 법을 설하신 당시에 도외라고 통칭하는 여타 종교의 바라문들과 치열하게 사상적 논쟁을 거듭하였다. 단지 상대방을 조복시키려는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일상의 영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독선과 아집을 벗어남을 경험한 붓다의 제자들은 중도적 관점에서 더욱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불교 토론을 통해 대승의 불자가 지녀야 할 고통으로부터의 중생구제의 이념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토론이 필요하게 되는 논제들은 대부분이 사바세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익과 생존의 문제이다. 양상은 다양하게 드러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공통점은 괴로움, 즉 고통이다. 그 이해관계가 정의롭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조율되지 못할 경우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목적은 결국 붓다의 출가 동기가 그러했듯 고(苦)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 끝없이 천착하고 연민했던 붓다의 시선이 바로 토론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얻고자 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 우리 불자들은 못 삶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쟁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과 이해와 통찰을 하고 있는가. 자비는 그 고통에 대한 바른 통찰 속에서 발현되었을 때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붓다의 가르침은 자국의 언어로 그들의 정서를 담아내는 말과 글로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과 글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궁구하고 사색하며 토론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초심 학인 스님과 불교에 입문한 불자들은 한문이라는 장벽 너머로 불교를 이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불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도 만만치 않은데 한문까지 알아야 하는 이중고인 셈이다. 물론 현재 상당수의 한문 불전에 대해 한글 역경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고어 투의 불교용어로 인해서 어린 학인들이 현대 언어 감각과 불교 용어, 술어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말과 글로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그 틈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한 불교적 사고방식과 수행에 대한 이해는 우리 말과 글을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두루뭉술한 추측과 신비주의적 허상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개최 인연과 기획

해인사 승가대학은 이미 지난 2016년, 조계종 교육원 주최의 제1회 조계종 학인 토론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에 가을에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하안거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하안거가 시작되자마자 훈련에 들어갔다. 대회 결과는 두 팀이 각각 준우승과 우수상 수상이라는 나름 준수한 성적이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그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뜻밖에 기연이 다가왔다.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동문인 고(故)성안스님의 도반 스님들이 찾아와서 장학금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동문 스님들과 학장스님과의 인사과정에서 현재 승가대학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인 토론대회를 성안스님의 유족회의 뜻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토론대회가 열리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형식으로 천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보존국장을 역임하셨던 스님의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에서 대회 명칭도 <성안스님배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로 결정했

다. 이 장학기금은 전액 토론대회 입상자들과 참가자들 전원, 즉 전 학인에게 수혜가 돌아갔다. 이 지원에 힘입어 해인사 승가대학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해서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토론 주제의 선정

3월 신학기 개강에 맞추어 5인의 교수사 스님들이 모여 토론 주제를 각자 추천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총 두 가지의 주제를 정하되, 예선 주제는 전 학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불교 교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삼고, 두 번째 주제는 결선주제로서 불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기로 했다. 충분한 숙의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회와 제2회 대회까지는 예선과 결선 주제를 달리 선정했으나, 정규 교과목 이수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올해 제3회 대회부터는 단일주제가 선정되었다.

그간의 선정된 토론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회 (2017년)

- 예선 : 현대사회에서 수행, 포교에 적합한 것은 선불교라기보다는 정토불교이다. (찬성&반대)
- 결선 : 현대한국 사회에서 불자 인구 수 격감의 주된 원인은 공동체 내부의 원인에서 비롯된다.(찬성&반대)

제2회 (2018년)

- 예선 :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다. (찬성&반대)
- 결선 : 현대 한국불교의 기복적 요소는 바람직하다. (찬성&반대)

제3회 (2019년 10월 예정)

- 예선/결선 : 호국불교는 계율과 상존 가능하다. (찬성&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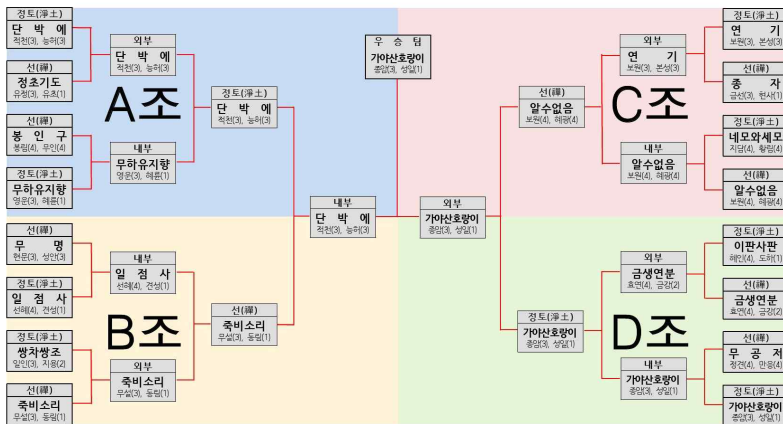
4. 토론대회의 진행

토론대회는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이 대회의 의미는 가을에

일회성으로 개최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었다. 즉 안거 기간 동안에 선원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듯이 강원에서는 정해진 주제를 놓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한철 안거를 보내자는 취지였다. 따라서 굳이 예선 라운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예선이 아닌 이미 결선으로 돌입하는 것이었다. 아직은 젊은 학인스님들이 대부분이라서 토론이라는 경직된 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프로축구의 리그운영방식처럼 라운드 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즉 총 네 번의 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 라운드가 끝나면 조 추첨을 새로 해서 같은 상대 팀을 중복해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교수사 스님들의 논평 후에, 승패를 결정하고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여 동기부여를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전 대중이 매주 2일 이상을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공부하고 절차탁마를 거듭했던 시간이었다.

성안스님 배

제1회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



5. 기대효과

가. 긍정적 효과

첫째, 새로운 불교학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훈고학적인 틀 속에서 한문경

전을 해석하고 따라 암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불교적 대안으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

둘째, 기본교육 기관으로서의 승가대학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불교는 선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승가 생활에서도 침묵이 미덕이 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있다. 실참 수행의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만큼이나 대화를 통한 상호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경시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토론이라는 방식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의 의미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

셋째, 토론과 담론을 통한 조직구조 내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상하 반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전통승가대학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비구계를 수계하기 위한 위의를 익히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습의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하 반간의 경직된 위계질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론을 통해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인 1조의 토론 팀을 만들 때, 상하 반원이 한 팀을 이룰 경우, 어드밴티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동점이었을 경우, 승자가 되는 것이나 조 추천 시 부전승 팀으로 상·하반 구성 팀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는 것이다.

6. 미비점 및 향후 개선방안

가. ‘한국불교식 토론’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토론방법론 수립이 필요하다. 사실 해인사 토론대회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외부교육 기관이나 방송토론에서 하는 방식을 상당 부분 차용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불교적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그 자체가 중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토론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실험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토론을 통한 교학 탐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승가대학 정규과정 내의 토론식 수업의 확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티베트불교의 논리학 공부방법, 대론기법 등을 열린 사고로 수용하여 한국불교식 토론방법론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불교식 토론에 대해 특화된 강의를 할 수 있는 토론 전문 강사 인력의 수급과 전문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작년에 비로소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설

법과 토론'이라는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전문 강사의 확보나 불교식 토론에 부합하는 교재가 없어서 강의에 내실 있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Ⅲ.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활동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이는 곧 나(부처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지금 몸소 병자를 간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사람이나 하늘·세상·사문·바라문의 보시 중에서도 이 보시보다 가장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보시를 하여야 그것이 비로소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과보와 공덕을 얻어 좋은 이름이 두루 퍼지고 단 이슬의 법 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른바 여래·아라한 다 옳게 깨달은 이이니라.

모든 보시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이 보시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이 보시를 하면 그것은 곧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과보와 큰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렇게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이는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공부하여야 하느니라.”³⁾

1. 취지와 동기 : 보살도의 실현

불교는 못 삶들의 고통에 대한 싯달타 태자의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간병 수행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함으로써 무상을 사유하고 자비심을 키워갈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자 그 자체로 수행이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대사회적

3) 聞如是。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爾時世尊告諸比丘。其有瞻視病者為瞻視我已。有看病者。則為看我已。所以然者。我今躬欲看視疾病諸比丘。我不見一人於諸天世間沙門婆羅門施中最上無過是施。其行是施爾乃為施。獲大果報得大功德。名稱普至得甘露法味。所謂如來至真等正覺。知施中最上無過是施。其行是施。爾乃為施。獲大果報得大功德。我今因此因緣而作是說。瞻視病者則為瞻視我已而無有異。汝等長夜獲大福祐。如是諸比丘當作是學。爾時諸比丘聞佛所說。歡喜奉行 (T2.0569b29-569c12) 《增一阿含經》

봉사나 종교적 헌신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실제로 참여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사미니 승가대학보다도 사미 승가대학들은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호스피스병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보이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막 출가한 기본교육과정에 있는 사미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불교의 자비를 몸소 느끼고 발현할 수 있는 현장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학인스님들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 속에서 일상을 지냄으로써 육신의 덧없음 즉 무상을 직접 보고 사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부정관 수행이 될 수 있다. 셋째, 종교인으로서의 대사회적 헌신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과거보다 불교 지도자들의 지도력의 추락은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인스님들이 하심을 통해 더욱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소외되거나 주저하는 곳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고 활동하는 모습은 사회인들의 불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불교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기획과 진행과정

해인사승가대학은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프로그램은 4년이라는 기본교육과정에서 마지막 졸업반인 4학년 과정에서 시행된다. 4학년은 화엄경과 화엄사상을 중심교과 내용으로 한다. 결국 실천을 강조하는 보현행의 구현 방편으로서 호스피스 임상 수행은 실질과 형식을 갖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2018년 하안거에 울산 자재 요양병원 원장인 능행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다. 불교 전문 호스피스 요양병원의 설립 유래와 과정 그리고 호스피스 즉 임상 수행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지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전통사찰 승가대학의 경우 매 학기가 안거기간과 겹쳐져 있다. 따라서 안거기간 동안에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서 공동체가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

어서, 사전에 시간을 두고 어른 스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설명해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행히 방장스님, 주지스님, 유나스님, 선원장 스님, 율원장 스님 할 것 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 후 동안거에 드디어 첫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4학년 총원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수업 공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원과 사전협의 하에 화엄경 수업의 연장으로 처리했다. 실제로 자재 요양병원에 가서 머무는 3주 동안 오전에는 병동에 투입되어 환우를 돌보고 오후에는 실제 활동에 필요한 임상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처음에는 학인스님들이 어색해했지만, 바로 곧 적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보고 활동을 이어나갔다.

3. 프로그램의 진행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
		오전: 임상수행	오전: 임상수행	오전: 임상수행	오전: 임상수행	오전: 임상수행
	오후: 입재 오후2시~4시 병원 활동 OT / 김미경 간호부장	오후2시~4시 영적고통에 대한 돌봄 방법-능행스님/ 능행스님 오후4시~5시 스터디	오후2시~4시 영적고통에 대한 돌봄 방법-노인과 식이/ 능행스님 오후4시~5시 스터디	오후2시~4시 영적고통에 대한 돌봄 방법-치매, 중환자/ 능행스님 오후4시~5시 스터디	오후2시~4시 영적고통에 대한 돌봄 방법-호스피스/ 능행스님 오후4시~5시 스터디	오후2시~5시 대중 윤력
9	10	11	12	13	14	15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대중 윤력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불교임상기도, 임종의식 실제-1 / 능행스님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불교임상기도, 임종의식 실제-2 / 능행스님	영적고통에 대한 돌봄-환기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불교임상기도, 임종의식 실제-3 / 능행스님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임종의식 시연 / 능행스님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대중 윤력
16	17	18	19	20	21	22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대중 윤력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R.N.B.C - 신념구조 다시 세우기 / 능행스님	오전: 임상수행 오후2시~5시 R.N.B.C - 신념구조 다시 세우기 / 능행스님	오후2시~4시 집제 (환자 돌봄 _사례중심 발표) / 학인스님	오후2시~4시 고제 (환자 돌봄 _사례중심 발표) / 학인스님	오전: 회향	

3. 기대효과

해인사승가대학의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인스님들은 비구계를 수지하지 하기 전에 출가 수행자의 삶에 대해 사유하고,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직접 봄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비와 연민을 마음속 기를 수 있으며, 승가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승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수행자들이 이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응답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 또는 요양병원 활동에 대한 비구스님들의 관심과 현장 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비구니스님들에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비구스님들도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두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4. 미비점 및 향후 개선방안

동안거 중에 결계대중 일부가 별도의 수행처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부담과 졸업반에 한정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고 사유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다. 가능하다면 연중 동안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하안거에도 실시하여 연 2회 실시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실제 체험에 주안을 두고 있지만, 그 전에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병원에 가서야 관련 수업을 듣고 이론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봄학기부터 상시로 관련 수업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더욱 실질적인 임상 수행으로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해외 성지순례 프로그램의 개편

1. 취지와 동기 - 이웃종교 성지 탐방 및 체험

선불교 전통이 강한 한국불교 특유의 정서상 그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발

심 학인스님들로 하여금 자칫 산중 은둔과 고립으로 생활 정서가 굳어질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가 세상 속으로 그 보폭을 넓혀가면서 소위 ‘국제 감각’을 가진 스님들을 양성해 내는 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유학경험을 갖춘 소수 몇 명의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직 구체적 수행자 상이 정립되기 전 기본교육과정에서 최대한 세계 속의 다양한 종교전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호 종교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종교 간 관용과 평화를 복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2. 기획 및 진행 과정

일단 그간의 여러 교류가 있었던 한국천주교와 이 프로그램을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종교 간 대화위원회’에 그 성사 여부를 문의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교무회의를 통해 기존의 졸업반 인도 위주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결과 1학년- 일본, 2학년 - 중국 또는 대만, 3학년 - 바티칸 시티, 4학년- 인도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각 반 교수사 스님과 학인스님들이 직접 조율하면서 정해가는 방식이었다. 여기서는 바티칸 시티 방문 일정⁴⁾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3. 교육적 효과

무엇보다도 산중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학인스님들의 시야를 확대한다는 점

4) 10.22 로마도착 / 10.23 라뜨라노 수도원(Laterano) 방문, 알폰서 성당 (Church of St. Alphonsus Liguori),

성 마리아 성당 (Santa Maria dei Miracoli and Santa Maria in Montesanto), 성 지오바니 성당 Basilica di San Giovanni in Laterano) / 10.24 로마 바티칸: 교황 친견(Vaticano, Roma) / 10.25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원(Trappisti) 방문 1박 / 10.26 수비아코 베네딕트 수도원 (Monastero Sacro Speco Subiaco) 1박 / 10.27 Assisi의 성모 마리아 성당(Santa Maria degli Angeli), 피렌체(Florence)로 이동/ 10.28 Cinque Terre의 Manarora /10.29 피사의 사탑Siena의 Mangia / 10.30 중세도시 오르비에또 방문 후 귀국길에 오름

이다. 단순히 종교 간 화합도 중요한 명분이지만, 그 이전에 대표적인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귀국 이후 프로그램 참여 학인들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의미 있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교황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스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바로 각자가 한국불교를 대표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된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할 것이다. 여행 후에 스님들은 시야를 유럽 역사와 문화에까지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인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화와 상상력의 지평이 확대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4학년도 인도성지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성하를 직접 친견했다. 달라이 라마성하께서 해인사승가대학 학인들만을 위한 친견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법문을 해주셨다. 이를 통해 학인스님들은 환희심과 함께 출가를 통해 각자가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한층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4. 미비점 및 향후 개선방안

한 마디로 기대 이상 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처음 순례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천주교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교황친견 및 수도원 생활 체험 등 내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현재에도 최초 추진과정의 천주교 측 인사들이 지속적 협조 의사를 전해왔다. 그래서 올해 진행과정에서는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향후 이 교류 프로그램이 소임자의 변경에 상관없이 정례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대를 닦는 방향으로 순례 일정과 제반 사항을 수립하고 있다. 미흡했던 점은 출발 전에 유럽의 문화 또는 가톨릭 역사에 대한 특강이라도 사전에 기획됐었다더라면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IV. 해인사승가대학 혁신의 방향성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각각 독립적 성격의 내용으로 진행되지만 모두 공통된 철학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이 승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 수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수업에 대한 학인들의 만족도가 낮고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수사들이 할 일은 인생의 큰 결단을 통해 출가한 학인들이 인격과 지식의 비약적 성장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인스님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수행에 대한 방향성, 세상에 회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혁신이 거듭되면서 모든 수업과 프로그램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들이 담고 있는 교육적 의미이다.

1. 커리큘럼에서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기본교육과정으로 제시한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설법과 토론] 등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목도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커리큘럼도 사찰승가대학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는 이행해 나가기가 부담스럽거나 역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해인사승가대학의 경우는 정규 교과과정과 현실 사이의 틈을 좁히려는 시도로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정규 커리큘럼을 이행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입체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간화선의 이해가 과목으로 편성된 학년에서 그해 가을에 직접 중국 선종 사찰을 방문해서 역사적 기원과 자취를 짚어보는 식이다. 화엄경 시간에 ‘보현행’이라는 개념을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현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는 과정이다. 또는 ‘중도’라는 개념을 배웠다고 했을 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중도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직면하도록 하고 세상의 고통과 마주하게 과정인 것이다. 결국 정규과목과 병행되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다시 역으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을 가능케 한다.

2. 교실에서 현장으로

현재 사찰승가대학은 다양한 배경의 학인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교실 중심의 수업에서는 고학력의 학인스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격차가 상당하다. 이것은 현재의 제도교육을 승가 교육이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장 중심의 학습을 통해 교실 밖에서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학인스님들은 단순히 교과서에 국한된 체득이 아닌 실질적인 경험과 사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교실 수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개성과 장점을 발현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화엄경의 보현행을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아무리 한문해석이 뛰어난 학인이라 하더라도 현장 실습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직접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어떤 학인은 교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과 웃은 얼굴로 환우를 돌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과연 누가 화엄경의 보현행을 잘 이해하고 체득했다 할 수 있을까. 불교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정보의 단순 전달이 더 의미가 있기 어렵다. 종교단체 또는 수행공동체의 수업은 실제 수행과 중생구제의 이념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배울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상은 열린 사고와 폭넓은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 개념들을 다양한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불교는 교리와 세상의 현실 상황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 경계를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들을 연기적으로 연관 지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3. 받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강의 중심적 교육방법은 높은 수치 실패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교실에서는 배워야 하는 정보 대부분은 강의가 끝난 후, 몇 달 안으로 잊힌다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했으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현되는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마디로 ‘하는 수업’이란 공부한 내용을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서 직접 실천해 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과목 그 자체보다 학인 개개인의 개성과 근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양성을 가진 학인들이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방식의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사한 다양한 정보와 주제에 대한 정리된 이해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또는 순례길에서 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수사의 자질이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유동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야 학인스님들의 수행자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이해와 경험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마치며

전통 속의 혁신은 가능하다. 이천오백여 년의 불교 역사가 바로 혁신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출가자 격감의 시대, 위기가 아니라 승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이다.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가자 격감현상은 단지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인구수 감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출가 인원수로서 승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방식에서 고도로 잘 훈련된 자질 있는 수행자들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 출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공력을 들여야 한다. 그 정성을 들이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나름의 사찰승가대학 특성에 맞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최적화하는 그 자체가 혁신이자 수행이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교육 방법과 방향도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상 소개한 해인사

승가대학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승가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사찰승가대학 나름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착안한다면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교육과정에 있는 학인스님들 자질을 향상하고 그 역량축적을 통해 불교가 본연의 대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학인스님들이 현대불교가 바라는 보살상을 실현하고 미래불교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인사승가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현대 한국불교의 승가 교육이 ‘여기까지 왔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2발표]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승가교육 사례

혜진스님

화엄승가대학원 학감(원감)

I.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적 성찰

1. 전통강원 교육의 장점과 한계성

한문 석사 위주의 교육 그 장점과 한계성: 한문을 통해 전통불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 출가자들의 한문이해 수준의 저하로 실질적으로 의미있고 실효성있는 불교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

간화선 위주의 교육 그 장점과 한계성: 하나의 전통에 충실하여 간결하고, 통일성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교교학과 시대정신에 입각한 현대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 시대 대중들의 성향과 정서에 유리된 수행으로 호응이 저하될 수 있다.

2. 현 교육원장을 통해 개혁된 교육프로그램의 장점과 한계성

불교 전반적 이론의 섭렵: 개론, 사상사, 경전 등 다양하고 현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질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함으로 인해 피상적 이해에 그칠 수 있고, 또한 이해에 혼란이 심화되는 한계점도 발생할 수 있다.

전공 위주로 세분화된 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반야중관, 유식불교, 여래장, 선불교, 화엄불교 등 전공별로 세분화해서 불교에 접근하는 경우 특정부분을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은 전공별로 부분을 최고로, 또는 전체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파편화되는 불교이해와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이 다르면 소통이 쉽지않고 대론과 논쟁으로 이어져 적대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회통과 소통이 쉽지않아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조장될 수 있다. 불교의 저력이 응축되어 분출하게 하는 구조가 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이해의 혼란으로 분열되고 분파되어 그 저력이 위축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 대승불교 안에서도 전공별 긴장관계로 파편화 되기도 하지만 교육현장, 교구 안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도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됨.

한글위주, 교학위주의 공부로 정견에 대한 이해는 심화될 수 있으나 수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저감될 수 있다. 그리고 교학과 수행에서 지나친 수행의 강조가 지난 시대 간화선의 위주 수행의 병폐 였다면 지금은 지나친 교학의 강조가 오히려 수행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교학과 수행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학은 수행으로 인도하고, 수행은 교학을 점검하는 상호보완적, 상생적 구조로 회복되어야 한다.

II. 본대학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향적 성찰

본대학원의 연혁을 간단히 소개한다. 원조각성스님을 모시고 10여년을 화엄경, 금강경, 육조단경, 대승기신론, 종경록 등 요긴한 전통 불교경전들을 특강으로 개설하여 많은 스님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결실로 2015년 화엄승가대학원이

개설되었다. 2016년 대학원장으로 강혜등현스님께서 부임하여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화엄과 선불교를 아우르는 한 맛의 불교, 일미(一味)의 불교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학풍을 열었다. 2017년 혜진스님이 학감(원감)으로 새 학풍에 동참하였다. 원조각성스님을 높여 강주로 모셨습니다. 2년여의 실험과 준비로 2019년 초기불교, 금강경, 십지경을 중심으로 하는 일미의 과정을 개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 일미(一味)의 회복:

《초기경》,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십지경 등)》의 공통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확인함. 사성제(초기·부파불교에서 강조)와 사무량심(대승불교·화엄경에서 강조)의 구조 속에 불교를 파악함.

초기경(니까야와 아함)의 빠알리 원전 용어와 금강경, 화엄경의 원전언어인 산스크리트를 통하여 한문원전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며, 정확한 이해로 정견과 선방편(바른 방법론)을 확립함.

화엄의 《십지경》을 중심으로 해탈-열반의 한 맛, 일미를 확인하며, 연민심과 십바라밀을 중심으로 실천적으로 파악한다.

일미의 회복으로 파편화된 전공불교의 한계성을 극복을 시도함.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긴장관계를 해소함: 초기불교에서 설하는 부처님의 본의를 충실하게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대승의 가르침을 금강경과 화엄경(십지경 등)을 통하여 확인함.

2. 교학과 수행의 조화, 균형을 회복함.

사교입선, 알음알이 등으로 경시-무시되는 교학. 그로 인한 교학의 무지가 야기하는 문제점 대처함.

교학위주의 교육으로 수행이 경시되거나 도외시되는 경우를 대처함.

교학과 수행의 괴리를 극복함: 교학과 수행의 일치로 교학은 수행을 돕고, 수행은 교학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복구해야 한다. 교학은 수행의 좋은 안내

가 되어야 하며, 수행은 교학을 적용·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상호보완적 상생적 구조가 필요함(남방전통과 티벳전통 등 참고).

3. 교과 과정의 강조점과 지향점:

화엄경과 화엄사상의 본의를 《십지경》을 중심으로 육바라밀, 십바라밀에 입각하여 실천적으로 파악함.

중단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의 대승정종 정신을 잘 발현되도록 함.

자의성이 강한 《금강경》 이해로 야기되는 현재의 교학적 혼란을 《십지경》과 초기불교(니까야와 아함)의 기준으로 점검하여 보다 확고한 법 이해의 기준을 점검함: 법과 비법에 대한 초기불교의 명확한 이해를 확인함. 그리고 대승정종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서의 《십지경》 등을 주목, 강조함.

부처님의 원음인 초기불교(니까야)의 가르침과 대승 《금강경》, 《십지경》의 가르침이 놀라울 정도로 용어나 교학에서 일치하는 점을 원전(빠알리 원전과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확인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일관성을 확인함. 하여 일미의 불교를 구현해가는데 일조하고자 함.

《구사론》과 《유식삼십송》에서 강조하는 오위수행법(자량위/가행위/견도위/수도위/무학위)을 중심으로 수행차제를 점검함.

초기불교와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오온(색/수/상/행/식)을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점검함.

남방의 불교의 기준으로 청정도론, 북방불교의 기준으로 구사론을 참고함. 대승불교의 토대로 중론(입중론)과 유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립하고, 반야지혜에 대한 굳건한 이해에 토대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통하여 실천적 불교를 정립함.

- 《화엄과 선》 과목을 통하여 사상사적으로 일미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보완적으로 개설함. 초기불교, 인도사상, 인도불교사상, 중국불교사상과 선불교 사상사 등.

진정한 대승의 길을 확인함: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본의를 초기불교와 부파불

교,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함. 대보리와 대보살도로서의 십바라밀.

불교에 대한 우리시대의 요청에 겸허히 귀 기울임: 현대의 과학적 접근법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며, 시대정신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철학, 생태학, 심리학, 물리학 등과 기독교 등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수용, 대처 등.

III. 교육원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의 조화

화엄승가대학원으로서 화엄의 주제를 견지해야하는 교육원 표준 프로그램을 수용함.

교육원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본 대학원의 강조점과 지향점을 조화시켜 가야 하는 점을 견지함.

[참고자료]

2019년 대학원 과정 안내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I. 교육목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반야중관, 유식, 화엄), 선불교를 일관된 체계로 이해를 확립한다. 교학과 수행의 일치를 지향하여 교선쌍수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바른 안목, 正見을 확립한 승가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대승 불교 국가인 한국에서 출가수행자들은 오늘날 바른 수행의 계위차제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초기 불교에 의거하면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 출가자의 이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승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초지에서 10지의 보살위를 증득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지의 보살수행과 아라한의 수행은 전혀 다른 별개의 수행인가? 또한 금강경에서는 대승 아라한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승 아라한과 초기불교의 아라한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나아가 21세기 출가수행자들에게 아라한 또는 10지 보살위를 실천 증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리고 선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과 도인 그리고 소승 아라한과 대승 아라한, 보살의 성취는 어떤 관계인가?

이 모든 논점들을 원전 금강경과 10지경 그리고 초기 경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석서들을 통해서 점검하여, 이 시대의 바른 견해와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천적 불교를 확립하여 승가의 정신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고운사 화엄 승가 대학원의 지향점이다.

교재는 한글번역본을 위주로 하지만 원전강독 부분은 단락별로 중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설명함.

*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초기불교(니까야 등), 반야중관(금강경, 반야심경

등), 유식불교와 화엄불교(십지경 등), 선불교를 원전언어(한문, 산스크리트, 빠알리)에 토대하여 일관된 체계로 이해를 확립한다.

* 사성제와 반야바라밀 등 정견에 토대해서 팔정도과 육바라밀, 십바라밀 등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용·검증되는 실천적 불교로 승가의 지도력을 복원한다.

II. 전문과정(2년과정) 교과목 안내(2019년 신입생)

1학기

* 본대학원의 지향점을 분명히 이해, 확립한다.

십지경 요약(한글번역본과 산스크리트 원문 참조)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초기불교, 불교 사상사)

산스크리트어 기초 특강(명사, 문장구조, 어원, 접두어 등)

2학기

초기불교 강의(교재: 초기불교 이해, 부교재: 상윳따 니까야)

초기불교 니까야(빠알리) 강독

초기경전 중에서 사문과정, 대념처경, 대인연경, 회생경, 뱀의 비유경 등 초기불교의 기본되는 경전과 금강경, 십지경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되는 초기경전을 선집하여 강의함(니까야 15~20개 경전 이내).

3 ~ 4학기(2년차)

금강경 강독(산스크리트 원전중심 강독/번역본 참고)

산스크리트 중급 특강

십지경, 화엄경 강독(한글번역본 위주. 산스크리트 원전 대조, 십지경론 참고)

십지경은 화엄경의 화엄경, 핵심이요 골수이다. 인도에서 화엄경은 십지경인 별행경으로 유통되었다. 현재의 북방 화엄경은 십지경을 중심으로 여러 경전을 재구성하였다. 십지경은 연민심과 십바라밀을 중심으로 화엄을 실천적으로 잘 정립하고 있다.

구사론 요약(교재: 아비달마 불교 외)

《구사론》은 북방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의 다양한 법에 대한 논의를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설하여 집약한 논서이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아우르는 북방불교의 핵심이며 대승불교로 들어가는 문, 입문이다.

- ◎ 본대학원은 교육원의 표준교과과정을 존중하며 따른다.
- ◎ 화엄승가대학원 본원에서는 한글번역본을 위주로 함.
- ◎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빠알리(초기불교), 산스크리트(대승경전) 원전대조 강독함.
- ◎ 금강경은 한글본과 원전(산스크리트)위주로 강독함.
- ◎ 불교 교학과 수행의 주요술어는 원어(빠알리, 산스크리트 등)와 대조하여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함.
- ◎ 교재강독 후 단락별로 내용을 교학과 수행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요약 설명함.
- ◎ <화엄과 선>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여 초기불교, 인도사상, 부파불교, 인도불교사상사, 중국불교사상사, 선불교사상사, 화엄사상사 등을 일미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학습함.
- ◎ 필요할 경우 청정도론, 아비담마, 구사론, 입중론, 중론, 유식삼십론, 입능가경 등의 특강을 개설할 수 있음.

[제3발표]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은광스님
운문사승가대학

I. 운문사 승가대학 기본교육기관으로 역할1)

1) 과거의 과거

얼마 전 까지 전통강원에서 공부했던 이력과정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범스님의 논문²⁾에 의거하면 벽송지엄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산문화에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지표는 ‘선교겸수 선교회통 원용수행’으로 교과과정은 사미니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로서 전등록과 염송을 공부했고 수학기간은 10년이나 11년이 통례였다.

근. 현대에는 7년에서 5년 동안 공부했으며, 1984년에 4년으로 ‘전국비구니강원교직자회의’에서 통일안을 마련한 이래 2012년까지 교육내용은 이력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력과목에는 선과 화엄으로 일관 된 교과목으로 이론과 실천 수행을 대신해

1)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작년에 발간된 『운문사지』 제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운문사지』 2018. 대한불교조계종운문사. P327-347.

2) 『강원교육에 끼친 보조사상』(『보조사상』3, 보조사상연구원,1989. 참고.

왔던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화엄과 선이 지난 300년 동안 변함없이 수행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굳건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한계와 문제점으로 몇 백년 내려오던 교육수행 방식을 현대식 불교교육으로 전환했어야 했는가? 이제 현대식교육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 과거

불교는 특이하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나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삼계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대 서원을 하고 있으며,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방법으로는 정확히 육바라밀의 수행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 옛날 스님들은 긴 행자시절을 대중에서 보냈다. 갓 출가한 이들에게 바로 경전을 가르쳐 주는 일은 없었고, 엄청난 사중 일을 이것저것 다 해야 했으며, 뜻도 모르는 염불을 외우고 초발심자경문을 외우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중 최고는 절 기도를 하는 것이라 하여 절을 참으로 많이 했다

(강원)승가대학에 입학은 하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나 운문사의 경우 너무도 많은 발일과 도량정비 후원소임과 기타 끝도 없는 운력으로 공부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스님들이 처음 입학하여 한문으로만 되어있는 엄청난 내용의 조사어록과 대승경전을 4년 동안 배우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인입장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었다. (극소수 아주 뛰어난 몇몇의 학인을 제외하고) 그러나 그 시절 뜻을 알든 모르든 학인들은 열심히 글을 읽고 치문을 외우고 선가귀감을 외웠으며, 강사스님께서는 모든 과목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시고 끝내 모든 과목은 종강을 하게 된다.

회주스님께서 1학년 스님들 방부를 받을 때면 항상 ‘望龍象德하야 能忍長苦하고 期獅子座하야 永背欲樂이니라.’라는 글귀를 인용하여, 인욕과 대중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바로 부처님인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더불어 경전의 중요성을 말씀 하실 때면 역대 조사스님들이 경전을 보다 깨달음을 얻으셨음을 일깨워주시고 비구니 스님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북돋아주셨다. 이러한 가르침은 먼 훗날까지도 수행을 하는데 지표가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스님이나 똑같이 별반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고, 강사스님들의 노과심절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졸업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학인스님들은 패기가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인간적인 정이 있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전공부 이외에 배우는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화합하기위해서 아상을 내려놓아야 했고, 흠을 만지며 고되고 힘든 운력을 하면서 자연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뼈 속 깊이 체감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많은 소임을 살면서 책임의식을 배우고 점점 상반이 되어가면서 선배의 막중한 역할도 배우게 되는 곳이었다.

3) 현재

현재 교육원의 지침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 34과목으로 교과목이 바뀌고 학사일정이 통일되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교과목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하는 걱정과 전통적인 이력과목이 이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 수행지침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고민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중관, 유식, 정토, 초기불교, 포교, 응용분야 역사. 그리고 개론서들이 포함되어 좀 더 평이하게 공부 할 수 있도록 1.2.3.4학년에 각각의 과목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져 있다.

새로 개편된 교과목을 시행한지 벌써 10년의 세월이다. 현대식 교육으로 바뀐 이 시스템은 토론과 발표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교수스님이 강의 하는 것보다는 학인들의 참여도가 높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도기여서 그러려니 애써 마음을 거두어 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맹자에 나오는 掘苗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싹이 빨리 자라지 않아 답답함을 못

이겨 싹의 키를 키우기 위해 싹을 모조리 뽑아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불교교육은 수행자를 만드는 일이고 성숙한 수행자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 된다. 바쁜 마음을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일반사회와 똑같이 우리 불교 내부에서도 뭔가가 너무 급하고 바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요즘 운문사에는 많은 부분 운력이 없어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한문으로 읽고 외우고 쓰는 일이 적어지면서 가뜩이나 신세대 스님들이 한문에 취약한데 더더욱 한문과는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II. 수행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오래된 미래)

지금은 수행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 이 질문이 앞으로의 교육의 전망이 되리라 생각한다.

AI나 4차산업 유튜브 등등 교리적 개념적 이해는 컴퓨터 네이버가 다해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최고 강사들의 강의는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고, 큰 스님들의 법문도 시공을 초월하여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책과 컴퓨터를 통해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에 사람들은 왜 출가를 하는 것일까?

반대로 핸드폰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경쟁 긴장 속에서 불교수행은 부처님시대로부터 축적된 고도의 지혜를 간직한 보배창고를 가지고 있고, 성숙한 수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왜 출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또 요즘 많은 스님들마저도 미안마로 수행을 배우기 위해 떠나가고 있고, 티벳 불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불교 수행을 우리 한국스님들이 기꺼이 선택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한국불교의 교육프로그램과 수행프로그램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명상수행을 하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주 비싼 값을

치루고 명상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수행을 배우고 있고, 수준 높은 정신적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을 하는 시대다.

수행을 깊이 있게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스님이 필요한 것인가?

16주 동안 발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부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어떤 의미고 현장과 구마라즙이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도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상과 인상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서로 고민하며 수행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인들에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 져야 한다.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불교교육방법과 전통사찰 승가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은 분명 달라야 한다. 수행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불교에서의 경전 공부방법이라면 “聞思修”와 ‘信解 受持讀誦 書寫 爲他人說’이라는 비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증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인 듯하다.

뜻도 모르고 읽고 외웠던 방식, 원문을 쓰고 새김노트를 써서 제출하던 방식, 그 속에 많은 해답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대단히 세련되고 이해 가능한 최첨단 설명서가 제시된다면 말이다.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가귀감에 다 제시되어져 있고,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초발심자경문에 낱낱이 다 제시되어져 있다. 이시대의 청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우리의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깨달음을 목적으로 직접 반야와 자비를 체득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없다면 수행자들은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어떤 포교도 교육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하위권이다. 자살률이 높고 청소년

들은 젊은이 다운 기백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불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스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스님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 되어야 하리라.

[제4발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현황 및 발전방향

혜범스님

청암사울학승가대학원

지난 10년 동안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은 기존의 **한문불전 위주에서 34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09년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현응스님¹⁾은 ‘교육개혁 불사’라는 이름으로 ‘승가교육의 현대화·표준화·전문화’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17개 기본교육기관에 일률적으로 표준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형식적 틀은 갖추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내실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종단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현 승가교육에 관하여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교과과목 개편을 통한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승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승가교육의 목표 설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승가교육의 목표 설정’은 ‘**사회에서 수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수행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수행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1) 현응스님은 2009년 11월 5일 열린 제182회 정기 중앙총회에서 제6대 교육원장(임기 5년)에 선출된 이래 승가교육개혁을 진두지휘 해 왔고 제 7대 교육원장에 연임되어 2019년까지 교육원장 소임을 맡게 되었다.

- 1) 청정성을 담보로 하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
- 2) 사회 문제에 응답하는 불교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승가교육의 목표’는 위의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현행 승가교육기관의 교과과목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I. ‘현행 기본교육기관 교과과목’ 현황

1) 승가대학 학년별 교과과목 배치 (표 1)

학기 학년	1 학 기	2 학 기
1	1. 한문불전강독Ⅰ(○○○) 2. 초기불교의 이해 3. 계율Ⅰ 4. 세계불교사 5. 선택과목(인도불교사)	1. 한문불전강독Ⅱ(○○○) 2. 대승불교개론 3. 초기불전Ⅰ 4. 한국불교사(동영상) 5. 선택과목(실용컴퓨터)
2	1. 한문불전강독Ⅲ(○○○) 2. 선학개론 3. 불교사회복지 4. 불교상용의례Ⅰ 5. 불교영어(초급)Ⅰ	1. 한문불전강독Ⅳ(○○○) 2. 대승불전Ⅰ 3. 불교상용의례Ⅱ 4. 불교영어(초급)Ⅱ 5. 설법과 토론
3	1. 한문불전강독Ⅴ(○○○) 2. 선어록Ⅰ 3. 계율Ⅱ(중단과 불교윤리) 4. 중무행정 5. 선택과목(참선지도방법론)	1. 한문불전강독Ⅵ(○○○) 2. 대승불전Ⅱ 3. 간화선의 이해 4. 선택과목(정토사상)
4	1. 한문불전강독Ⅶ(○○○) 2. 포교방법론 3. 선택과목(천대사상)	1. 한문불전강독Ⅷ 2. 불교상당 *졸업논문, 시험, 평가
교과과목	필수 29	선택 5
총 34		

2) 2019년 청암사승가대학 1학기 시간표 (표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학년	자 율 정 진	치문	초기불교 의 이해	치문	계율 I	세계불교사	인도 불교사
2학년		원각경	원각경	불교상용 의례	불교영어 I	불교 사회복지	선학개론
3학년		계율 II	기신론	종무행정	기신론	참선지도 방법론	선어록 I
4학년		천태사상	포교 방법론	화엄경	포교 방법론	화엄경	천태사상

II. ‘현행 기본교육기관 교과과목’의 장단점

1)장점

교육원은 2009년 ‘불교교육의 현대화·한글화·전문화’라는 기치 아래 여러 가지 승가교육 개혁을 시행해 왔다. 지난 10년간 교육원이 추진한 교육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

교육원은 ‘6개월 행자과정의 월차별 교육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행자교육-4년 승가대학과정-전문과정-연수과정’이라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했다.

② 사찰승가대학원 체계를 구축

17개 기본교육기관의 기본교육을 토대로 율학 선학 초기불교 한문불전 등 ‘사찰 승가대학원 체계’를 구축해 종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분야 인력양성의 틀을 갖추고자 19개 사찰승가대학원²⁾을 운영하고 있다.

③ 연수교육의 다양화

교법의 심화와 응용을 반영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스님들의 재교육의 장을 마련해 놓았다.

④ 종단 장학금제도 도입

2011년부터 ‘종단 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안정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단점

일반 대학 커리큘럼을 모방한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① 교과과목이 너무 많다.

주6일 수업 중 주 5일 동안 각기 다른 과목을 수강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학습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예불 발우 사중행사 운력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어 수업 준비를 해야하는 사찰내 승가대학의 일상생활을 무시한 교과과목 편성이다.

② 현재 조계종 출가자들의 기본 학력과 평균 출가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조계종 출가자들의 평균 출가 연령은 40대 중반이고, 평균 학력도 대졸 이상이 50%를 넘는다. (2016년 기준으로 초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이 고졸비율보다 앞섰다³⁾) 이러한 형편에서 불교교양과목인 선택 과목이 전체 교과과목의 2/3

2) ①울학(9);동화사 백양사 범어사 송광사 쌍계사 통도사 해인총림 봉녕사 청암사

②한문불전(5);기림사 동화사 봉선사 불학승가대학원 운문사

③화엄(2) 고운사 동학사 ④선행(1)유마사 ⑤초기불전(1) 선운사 ⑥중관 유식(1) 백양사

3)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 진광, 조계종 교육원, 2018년, p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선택과목 대부분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과목들이다.

위의 과과과목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출가자들에게 맞는 교과과목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과목수가 너무 많다.

③승가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은 위 교육 프로그램대로 하고 사찰승가대학은 사찰 승가대학의 특성과 강사진 등을 고려하여 자율권을 주었더라면, ‘불교교육의 현대화’라는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고 ‘전통의 계승’도 가능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17개 기본교육기관⁴⁾에 획일화된 교과과목 수강요구는 결과적으로 승가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현재 발심 출가한 많은 출가자들은 현행 조계종 교과과목에 불만을 표하고, 경전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열망과 절망을 표출하고 있다.⁵⁾ 그리고 일부는 소위 ‘공부도 수행’되지 않는다며 승가교육 현장의 실태에 실망하여 승가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④전공 강사진이 미흡하다.

교육의 성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훌륭한 교수진의 확보이다. ‘**개편된 교과과정 강의를 누가 담당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고 지원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경전 외에 강의는 동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일정부분 비전공자가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의의 질적수준 저하와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4) 해인사 송광사 불국사 범어사 동화사 쌍계사 수덕사 화엄사 법주사 운문사 봉녕사 청암사 동학사

기본선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5) 2019년 4월 14일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교육분과 연구회’가 주최하고, 청암사 승가대학이 주관한 ‘제1차 조계종 승가교육 발전에 관한 의견수렴회’에서 청암사 학인 대다수가 교과과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Ⅲ. 과거 한문불전 위주 교과과목과 장단점

1) 과거 한문불전 위주 교과과목

학년	과목
치문반	치문
사집반	선가귀감 서장 대총상 도서 선요 절요 등
사교반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대교반	화엄경

2) 장점

경전을 반복하여 수지독송 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독송하는 것이 뇌 세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한 우물을 파라, 혹은 한놈만 패라’라는 말이 있듯이 40대 출가자들의 뇌세포는 잘 변하지 않는다. 즐기차게 한 우물만 파야 변할동 말동 한다.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님들의 내적인 변화 즉 수행자로서의 자질 향상이 눈에 띄었으나 지금은 1학년이나 4학년이 매 한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음은 지난 강원의 한문불전 세대이자 강사로써 현 교과과정 교육현장을 지켜본 한 스님의 전언이다.

“지난 한문불전위주의 강원(사찰 승가대학) 시스템에서는 경전을 깊이 관조하여 수행의 지표로 삼을 수 있었고 수행의 위의로 발현될 수 있었다. 대교반 정도 되면 마음 씩씩이가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또한 어떠한 장애가 닥쳤을 때, 經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즉 경전이 수행의 중심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지금 학인들은 과목이 많아 과제물 위

주로 쫓아가다 보니 너무 산만하고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수행의 위이에 변별력이 없다”

3) 단점

- ①經·律·論 삼장 중 經 위주로 교과과목이 편성되었다.
- ②經중에서도 禪 위주의 교과과목 편성이다.
- ③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IV. 기본교육기관 교과과목 발전방향

바람직한 승가 교육은 사회의 여건에 맞추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서 발전을 기대하고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제도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했다.

지난 2009년 이래 ‘교육개혁 불사’라는 이름아래 추진된 여러 교육제도는 큰 틀에서 시대의 흐름과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기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다수 학인들은 소위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00년 동안 이어진 승가교육은 수당시대의, 조선시대의 서당식 교육이었다고 매도하기에는 분명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승가 교육의 정체성이자 세속 교육과 변별되는 특수성이자 장점이었다.**

기본교육기관 교과과목 발전은 ‘**현행 교과과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 ①한문불전을 포함하여 한글 니까야 경전 등 경전 과목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주 4회 정도)

②수행을 실참할 수 있는 과목과 명상원등을 자체 승가대학에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역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③경전 과목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1학기당 1강좌만 들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비율을 대폭 늘린다. (주 1회)

1학년;불교개론/ 부처님 생애

2학년;불교사(인도 한국 세계불교사중 택 2)

3학년;계율1/계율 2

4학년;포교방법론/종무행정

④전공 강사진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책 마련

■ 교과 과목별 전임교수 확대

⑤사찰 승가대학의 교수정년제⁶⁾ 폐지

■ 원로 스님들의 경전 강의 의욕 저하의 문제점 발생

■ 원로 스님들의 경전 강의를 듣기 위해 출가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경전과목 비율 확대+실참 수행

전공 강사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V. 승가 기본교육기관 이대로 좋은가?

현재 대다수 사찰내승가대학의 인원은 최소인원 20명이 안된다. 한해 출가자 수가 남행자 여행자 합해 150여명 남짓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본교육기관 운영

6) 교육원은 2016년 12월 26일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여 교육원 총령에 상주교역자 정년제도를 신설했다.

'제17조의 2항 (상주교육교역자 정년) 상주교육교역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조계종 홈페이지 2016년 12월 26일 공지)

방식대로 가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 볼 문제이다.

1) 기본교육기관 현황

사찰승가대학 14군데 중 나머지 5군데는 기본정족수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말 기준, 2017년도 비슷함⁷⁾)

2) 발전 방향

① 정원수 미달 승가대학에 대한 중단 차원의 인위적인 폐지 대신 정원규정 폐지를 통해 전통적인 강원 교육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원 미달로 인해 자체 고사하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승가대학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② 승가대학별 특수성을 살려,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강화해 주는 방법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청암사 율원장스님의 ‘능엄경 강의’를 특화해서 타 비구니 승가대학 학인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방법들을 도입해 볼 수도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조계종단은 한국사회의 출생자 감소, 고령화로 인하여 1990년대에 비해 출가자수가 1/3로 줄고 기본교육기관 학인수도 150여명 안팎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출가자들도 갈수록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가자들의 1차 교육기관인 기본교육기관 교육환경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1) 현행 교과과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① 경전과목 수강시간 및 비율 확대

7)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 진광, 조계종 교육원, 2018년, p19.

②필수과목을 대폭 줄이고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수강과목 축소

2)전공 교수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①교육원 편성 예산 ‘기관운영비, 사업비, 보조금’ 중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66% 차지⁸⁾ (2017년 기준)

② ‘본사별 교육특별기금 신설’ 등을 통한 재정 마련

3)실참 수행공간과 교과과목 배정을 통해 ‘경전공부+실참 수행’ 위주로 전환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부족하나마 기본교육기관 재학생들의 변화에의 열망과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8) 위 7)번과 동일, p33.

■ 공지 사항 ■

1. 학회 홈페이지 주소는 ksbs.jams.or.kr 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학회지 및 학술대회 자료 등을 열람·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저널 홈페이지(journal.kabs.re.kr)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 불교학연구회의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의 모든 논문을 RISS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열람,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불교학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 선정(2015년) 불교학분야 최초의 우수등재학술지 [불교학연구]를 지난 20여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학회지는 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되며 올해는 58호~61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4. 불교학연구회에서는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학연구회 회비 및 후원금 안내 ○

학회 회비는 학회운영과 불교학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개인 : 일반 年 5만원, 평생회원 50만원

2) 기관 : 年 10만원

3) 임원 : 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및 이사 10만원

4) 후원 : 후원 보시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98-846026 (예금주 임승택)

▶ 연락처 : bulgyohak@daum.net / ☎ 010-4313-2122 (간사)

▶ 홈페이지 : ksbs.jams.or.kr / journal.kabs.re.kr

불교학연구회 2019년도 여름워크숍에 도움을 주신 발표자 및 사회자 선생님,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